

SEOUL ECONOMIC BULLETIN

# 경제통통

경  
제  
통  
통

## FOCUS

- '서울을 영화도시로' ... 총무로에 영화 메카 세운다

## ZOOM-IN

- 서울시, 7대 업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서울시, 기업성장·도시문제 해결 지원 '서울형 R&D사업' 추진

## HOT ISSUE

- 서울시, 민간투자사와 손잡고 유망 창업기업 적극 지원
- 서울시,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서울시-전라남도, 전통시장 상생발전 협약 체결

김가영(서울시 경제진흥본부 gykim@seoul.go.kr)

## | ‘서울을 영화도시로’ ... 충무로에 영화메카 세운다

서울이 영화 찍기 좋고, 영화도 많이 만드는 아시아 대표 ‘영화도시’로 거듭난다.

박원순 시장은 3월 25일 종로 독립영화전용관인 인디스페이스에서 서울 영화 문화 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충무로에 시네마테크를 건립하고 설자리를 잃어가는 독립영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창작의 기반이 되는 영화인들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 시네마테크 건립해 독립영화 제작·창작자 집중 지원, 영화를 매개로 한 시민소통

먼저 한국영화의 상징적 장소인 충무로에 ‘파리의 프랑세즈’, ‘뉴욕의 필름 포럼’, ‘타이베이의 필름 하우스’를 뛰어넘는 복합 영상문화 공간 <서울 시네마테크>를 건립한다. 이와 함께 약 7천㎡ 규모의 영화제작 전문 ‘실내스튜디오’와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도심형세트장’도 조성해 서울을 명실상부한 한류콘텐츠 핵심기지로 구축한다.

또 상영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독립·예술영화의 제작부터 마케팅, 상영배급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 상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국내·외 영화의 서울 촬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확보해 ‘서울 로케이션시스템’을 구축하고, 영화창작 주체인 감독·PD·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 중심의 지원을 펼친다. 경쟁력 있는 중·저예산 및 독립영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영화전문펀드’도 2017년까지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마을미디어 사업 활성화’, ‘지역미디어센터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영상매체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날 발표에는 이장호 감독을 비롯한 박찬욱 감독, 영화배우 강수연, 이제훈 씨 등이 참석해 서울을 아시아 대표 영화 친화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 | 서울시, 7대 업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중 8명이 근로기준의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PC방·미용실·편의점은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96%는 최저임금('14년 기준 5,210원) 이상을 받고 있었지만, 미용실과 편의점은 타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일한지 1년 미만이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휴게시간(13%), 초과근무수당(12%), 임금지급원칙(6%)에 대해서도 일부 근로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 커피점, 미용실, 편의점 등 7개 업종 근로자 2,697명 대상 기본적인 근로인식 조사

서울시는 3월, 7개 업종(▲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제과점 ▲화장품판매점)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분야는 ①근로계약서 작성 ②최저임금 준수 ③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지급원칙 ▲퇴직금) 인지 여부 ④조사 전체 항목에 대한 업종별 인지도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주휴수당·퇴직금 등의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업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사 결과는 시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아르바이트생·여성 등 근로자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보완함으로써 노동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과

## | 서울시, 기업성장 · 도시문제 해결 지원 ‘서울형 R&D사업’ 추진

서울시가 기술경쟁력 향상,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R&D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도시구현을 앞당기는 「2015년 서울형 R&D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서울소재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지역 R&D의 대표모델이다.

### • 중소기업 성장, 특화산업 육성, 도시문제 해결형 R&D로 행복한 도시구현이 목표

이번 지원사업에는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지원(82억 원) ▲공공 R&D지원 자금(59억 원)으로 총 141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탐색 및 접목을 위한 ‘R&D 제품기획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해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업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개발과 R&D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이전기술 사업화’, ‘중소기업 제품 상용화’, ‘특허기술 상품화 및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의 전 주기적 성장지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 • 안전,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법 찾아 市 정책으로 성과확산

자체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한 귀금속, 인쇄, 수제화 등 서울소재 도시형특화산업군의 고도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지원과 기후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형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해 향후 서울시 정책으로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산업군별로 필요한 공동기술 개발에도 집중하는 등 R&D 동향 및 기술공급·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서울형 R&D지원이 기술공급자인 대학과 연구소 중심에서 기술수요자인 기업, 더 나아가 기술수혜자인 지역사회와 시민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R&D를 통해 서울을 바꾸고 시민의 행복한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과

## | 서울시, 민간투자사와 손잡고 유망 창업기업 적극 지원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와 손잡고 유망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해,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한다.

### • 26일(목) 청년창업플러스센터 「2015 서울 창업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서울시는 3월 26일 서울시 청년창업플러스센터(구 용산청사)에서 「2015 서울 창업기업 투자설명회(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창업기업-투자자 만남의 장’으로 꾸며진 이번 설명회는 참가 기업이 투자자와 청중 앞에서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면 투자자가 현장에서 바로 투자 의사를 밝히고, 이후 절차를 거쳐 실투자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됐다.

기업명	사업아이템 및 기업실적
(주)해보라	외부소음을 차단하고 명확하게 통화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어셋 개발
(주)게임베리	글로벌 마케팅 검색 구매엔진(‘정글’) 개발
(주)그린라이트파트너스	위치 및 관심사를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유도하는 글로벌 소셜그룹 앱 개발
선의의 경쟁	중고 휴대폰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놀라디자인	일상 생활에서 태양광 충전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초고효율 태양광 충전기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창업투자지원센터 입주권(1년)과 1천만원의 창업자금, 컨설팅을 비롯해 투자자의향을 밝힌 민간투자사와 실제적인 투자연계가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

이날 투자설명회에 앞서 서울시는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노스마운틴 ▲오픈트레이드 ▲브라더스엔젤클럽 등 민간투자사 4곳과 「창업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로의 위상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또 청년창업플러스센터 1~2층에 투자자를 위한 사무공간, 특화보육실, 컨설팅룸, 개방형 협업공간으로 조성되는 「서울창업투자지원센터」의 개관을 알리는 현판식도 진행했다.



창업지원과

## | 서울시,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서울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외투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서울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개 외투기업의 신규고용 1,545명에 대해 35억 2700만 원을 지원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11명을 신규 고용한 외투기업 3개사가 총 2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 • 서울 8대 신성장동력분야 외투기업 중 '14년 신규채용 10명 초과기업 대상

보조금 신청조건은 외투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추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서울시 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고용인원이 전년대비 10명을 초과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업종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8대 신성장동력산업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산업이다.

### • 10인 초과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기업당 최대 2억 원

지원은 신규고용인원 10인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6개월간,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한국능률협회·상공회의소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외투기업도 교육훈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서울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해,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유치과

## | 서울시-전라남도, 전통시장 상생발전 협약 체결

장흥 표고버섯, 완도 김, 영광 굴비, 나주 배 등 전라남도의 신선한 농수특산물을 이제 서울의 전통시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과 전남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호 방문 및 밀접한 교류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경험도 공유한다.

서울시와 전라남도, 서울상인연합회와 전남상인연합회는 3월 22일 양천구 목3동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전라남도 상생발전 협약식」을 개최하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데 뜻을 모았다.

### • 농수산물 우선구매 · 전통시장 지속공급, 우수농수산물 생산지 상호 방문 등



이번 협약은 ▲서울시 ‘전통시장 가는 날’ 농산물 직거래 행사 시 전남 농수산물 우선구매 ▲전남 농수산물 서울지역 전통시장 지속공급 ▲우수 농수산물 생산지 및 전통시장 상호방문 및 공동마케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더불어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

해 도농 간 및 양 지역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진병호 서울상인연합회장,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라남도지역의 더 많은 우수 특화상품이 서울 전통시장에 보급돼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지원과